



다윗 이야기

⑤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.

나 레 이 셴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.

사 울 이놈... 이놈... 이놈~~~ 죽어버려라 이놈~~~

다 윳 허억!

나 레 이 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사울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베프 요나단이었습니다.

요 나 단 아버지,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?

나 레 이 셴 요나단과 다윗은 이별을 앞두고 서로 부둥켜안고 엉엉 울었고 슬픈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.

다 윳 엉엉... 나도 계속 엉엉...
달 엉엉...

나 레 이 셴 사울왕의 명령으로 온 나라는 다윗을 잡으려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였고 다윗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.

사 울 다윗 이놈! 게 썰거라~~~

나 레 이 셴 심지어 다윗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 그곳에서 숨어보려 하다가 그만 이스라엘의 다윗 장군이라는 사실이 탄로나 매우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.

외 국 인 1 타 슈 다윗.

외 국 인 2 He must be David.

외 국 인 3 다윗상데스까?

나 레 이 셴 그때 다윗은 침을 흘리며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여가기도 했지요.

다 윳 헤.. 헤... 강아지... 망아지... 오이지... 바가지... 나 여기있지... 나 다윗 아니지... 헤...

외 국 인 1 뷔스뷔스.

외 국 인 2 No no He's not.

외 국 인 3 아니므닌가 보니므니다.

나 레 이 셴 사울왕에게 들키지 않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계속 도망다니던 다윗은 아주 좋은 은신처를 발견합니다.

다 윳 어랏~

나 레 이 셴 그곳은 동굴이었습니다. 다윗은 그곳을 '피난처'라는 뜻의 아둘람이라고 불렀습니다.



다윗 숨어있기 아주 좋겠는데? 사울왕도 이곳을 찾아내진 못할 거야...
당분간 이곳에 머물러야겠다.

나 레 이 션 다윗이 아둘람굴에 머무르는 동안, 사울왕이 다스리는
이스라엘에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몹시 가난한 사람 그리고
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고
있었습니다.

사 람 1 아 정말 어려워

사 람 2 손주들 젖먹일 돈도 없는데 세금이라뇨...

사 람 3 이를 어째 이를 어째... 아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네...

나 레 이 션 이들은 사울왕의 통치 아래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
사람들이었습니다. 이렇게 사울왕의 통치 속에서 살기 힘들어하던
사람들은 한명씩 한명씩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굴로 모여들기
시작합니다.

사 람 1 다윗 장군님!

사 람 2 다윗 장군님!

사 람 3 다윗 장군님!

다 윳 허! 이곳을 어떻게 알고 왔소!

나 레 이 션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
어려웠는지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.

사 람 1 여차여차 했는데.

사 람 2 이만저만 해가지구요.

사 람 3 그러구저러구 했습니다.

다 윳 그랬었군요.. 알겠습니다.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곳에서 모두 서로를
배려하며 사람답게 살아갑시다.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
돌봐드리겠습니다.

나 레 이 션 이렇게 해서 다윗 주위에는 어렵고, 가난하고 병들고, 억울하고
원통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. 마치 가난하고
병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사람답게
대우해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. 이후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
먹고 자고 동고-동락하며,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
함께하는 다윗의 사람들이 됩니다.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나라와
왕궁을 떠나 힘든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 어려운 삶속에서 자신과
평생을 함께 할 가장 소중한 '사람들'을 얻게 되었습니다.